

취업 프로그램 강사 강압적 수업 방식 · 수강생들 항의 빗발쳐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미래인재센터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A강사의 수업방식을 두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A강사가 막말을 일삼고 일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A강사와 미래인재센터 측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강사는 올해 초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앞서 보낸 문자에) 회신 문자를 준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싸가지 없네. 취업의 기본도 모르는 싸가지들은 취업도 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업 휴강을 알리는 공지 문자를 보냈지만,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강사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 있는 K씨 또한 “A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충고라는 명목 하에 막말과 모욕적인 말을 한 적 있다”며 “A강사는 이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자신의 문자에 회신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머리장머리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너네 부모한테도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을 향한 막말 논란

A강사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때보다 고압적으로 진행한 것이 맞다”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일부 수



강생이 있어 혼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기분이 상했던 수강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미래인재센터 김동찬 센터장은 A강사의 막말 논란에 대해 “A강사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현재 해당 강사 역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명시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보도 잇달아 지적됐다. A강사가 프로그램 중 일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것이다. 수강생 H씨에 따르면 “A강사가 ‘이력서 작성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취업한 일부 선배들의 이력서를 모자이크나 편집 없이 실시간 화면으로 공개해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며 “이력서에는 성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H씨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강사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 공유 카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씨는 “카페 가입인사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카페 회원 모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법률로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H씨는 “취업한 선배들의 이력서

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본인의 이력서는 공개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A강사는 ‘본인들은 다 봐 놓고 왜 자기들 것은 공개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수강생들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미래인재센터 측은 “개인 신상과 자기소개서, 면접 수기 등 해당 학생과 구두로 합의 후 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강사 또한 “수업 시간에 공개한 이력서 모두 해당 이력서 작성자의 합의를 받고, 이메일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로그램 중도수료’와 관련해 미래인재센터와 A강사 측 공지 가 서로 오인될 여지를 남겨 혼란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도하차를 두고 미래인재센터는 공지를 통해 페널티 없이 ‘중도수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A강사는 중도하차한 수강생들에게 그대로 페널티를 줘 논란이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A강사의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다. 미래인재센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수강생들에게 ‘페널티가 없는 조건’으로 중도수료와 잔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A강사는 중도수료를 선택한 수강생들을 두고 ‘중도하차’한 것으로 여겼다. 앞서 A강사는 “프

로그램을 중도하차한 학생들은 취업 프로그램 참여 특전으로 운영 중인 ‘취업정보 공유 카페’에서 탈퇴 시키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A강사가 미래인재센터와는 달리 해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중도수료를 선택한 학생들이 해당 카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혼란만 가져온 불명확한 공지

학생들은 미래인재센터 측 공지에 따라 수강 여부를 선택하는 기간 동안 카페 탈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인재센터에서 ‘페널티’의 범위를 수강생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미래인재센터 측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미래혁신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열어 교과, 비교과 교·강사와 함께 이번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자료를 강사의 개인 카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공식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인재센터 측은 “앞서 공모전을 통해 취업 수기를 게시한 것처럼, 새로운 취업 수기들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업 컨설팅 관련 업체가 보유한 콘텐츠를 연계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 KHU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 사 기 간 2020.09.16.(수) ~ 09.22.(화)

참 여 대 상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상담신청 기간 2020.09.10.(목) 부터

행 사 내 용 기업인사담당자, 직무별 현직자와 채용상담 진행

참 가 방 법 박람회 홈페이지(www.khjobfair.com) 로 접속 후 상담신청.

세 부 내 용

- 서울·국제 캠퍼스 통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가장 오프라인과 가까운 경험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 체험이 핵심이다. 기존 온라인 채용박람회들에서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히던 생방향, 실시간 소통을 전면 강화했다.
- 기업담당자들은 타겟으로 하는 전공 혹은 보유 자격증 등이 있을 시에 해당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인재를 찾고 (민감 및 개인 정보 제외, 채용관련 기본 정보만 노출) 우리 기업 행사 참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참가 기업 정보 및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 가

능한 시간 중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상담 받고 싶은 내용과 함께 제출하는 형태다. 예약 즉시 상담은 확정되며, 당일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예약된 상담을 확인하고 상담방에 입장하면 상담이 시작된다.

이 외에도,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2020 경희대학교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www.khjobfair.com)나 운영사무국(khjobfair@univ.me)에 연락을 취하면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